

생일이 11주 차이 나는 쌍둥이(?)



한 엄마의 뱃속에서 11주 차이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쌍둥이일까?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할까?

지난 26일 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북부에 사는 릴리아 코노바로바(29)는 지난해 임신 사실을 알고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으로부터 뱃속 태아가 쌍둥이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 만해도, 이 여성은 자신이 태아를 두 번에 나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완전중복자궁(uterus didelphys)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천적 기형인 완전중복자궁은 두 개의 자궁이 동일 개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자궁 크기가 작아 유산과 조산, 불임의 위험이 높다.

코노바로바의 경우 임신 초기 초음파를 통해 확인한 태아들은 각각의 자궁에 하나씩 수정된 상태였고, 임태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어 11주의 출산 간격이 생겼다.

이 여성은 지난 5월에 첫째를, 그로부터 11주가 이달 초에 둘째를 무사히 품에 안았다. 이렇게 태어난 두 아이를 쌍둥이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각기 다른 시기와 자궁에 임태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제나 자매, 또는 남매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 여성처럼 완전중복자궁을 통한 중복임신의 확률은 500만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중복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다배란, 즉 여러 개의 난자가 배출된 뒤 이 난자들이 하루이틀 안에 서로 다른 정자와 수정돼야 가능하다.

한편 생일이 다른 쌍둥이에 관한 최장 기록은 2012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들로, 생일 차이가 무려 8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하다 돈방석에 앉게 된 커플

함께 보물찾기를 하며 데이트를 즐기던 영국 커플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아담 스테이플스(42·오른쪽)와 리사 그레이스(42·왼쪽)는 지난 1월 금속탐지기를 들고 서머셋의 한 사유지로 향했다. 이른바 '보물찾기'를 취미로 하는 이 커플은 이곳에서 1066년 주조된 은화 2,571개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스테이플스는 보물전문잡지 '트래저 헌팅'과의 인터뷰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의 은화가 무더기로 쏟아져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신고를 받고 지난 7개월간 감정을 거친 대영박물관 측은 이들이 발견한 은화가 1066년 해럴드 2세가 재위하던 당시 주조된 것이며 500만 파운드(약 61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해럴드 2세는 앵글로색슨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1066년 1월 왕위에 올라 같은 해 10월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헤이스팅스 전투는 영국 남동부 헤이스팅스에서 노르망디 공국의 정복왕 윌리엄과 해럴드 2세가 맞붙은 전투로, 해럴드 2세는 이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이 눈을 관통해 전사했다. 이로써 앵글로색슨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후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로 왕위에 오르며 노르만

왕조가 성립됐다.

이처럼 해럴드 2세의 재위기간이 단 9개월로 매우 짧기에 이 기간 주조된 은화는 매우 희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상당하다. 대영박물관에 따르면 해럴드 2세 당시 주조된 은화는 현재 한 닢당 2,000~4,000 파운드(약 2,500달러~5,000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지난 7개월간 감정을 거친 대영박물관 측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하고 "소유권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물을 발견한 스테이플스와 그레이스는 박물관 측으로부터 감정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토지 소유주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간식 얻으려고 다친 척 하는 견공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간식을 얻기 위해 다친 척하는 방법을 터득한 견공의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다.

지난 28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태국 수도 방콕 거리를 떠돌고 있는 개 한 마리는 사람이 자기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뒷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다. 현지 주민들에게 개(Gae)라고 불리는 이 떠돌이 개는 뒷다리를 질질 끌며 걷다가도 일단 사람이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하게 일어서서 간식을 받아 먹는다.

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유한 타워폰 총플라 풀쿨이라는 이름의 현지 여성은 "난 개를 좋아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고 떠돌이 개들을 돕고 있다"면서 "몇 년 전부터 거리에서 이 개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는 나이가 많지만 매우 영리하다. 항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런 수법을 쓴다"면서 "내가 밥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이 개는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이 개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간식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동물애호가들은 이 개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가 혹시 다치지 않을까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주민은 "이 개에게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개의 두 다리를 확인했으며 양쪽 모두 양호했다"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